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1,904천km ²	GDP	7,065억 달러 (2010년)
인구	243백만 명 (2010년)	1인당 GDP	2,908 달러 (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Rupiah (Rp)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달러당)	9,090.43 (2010년 평균)

- 인도네시아는 약 17,5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서 2억 4천 3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유, 천연가스, 석탄, 주석, 구리, 니켈, 천연고무 등 자원이 풍부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내수 시장,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유도요노 정부의 적절한 경제운용 등에 힘입어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음.
- 2009년 4월 총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PD)이 최다 의석을 차지한 데 이어, 동년 7월 대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로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유도요노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개혁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연정내 여타 정당들의 반대, 천연자원 이외의 수출기반 부족,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만연 등이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는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6.4	6.0	4.6	6.1	6.5
재정수지/GDP	-1.3	-0.1	-1.6	-0.9	-1.2
소비자물가상승률	6.3	9.9	4.8	5.1	5.7

자료: IMF 및 EIU

□ 양호한 경제성장세 지속

- 2008년에는 하반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석유와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 의존도(GDP 대비 30% 미만)로 대외 충격을 덜 받아 6%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음.
- 2009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빈곤층 앞 현금 지급 및 공무원 급여 인상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정책 실시와 2009년 4월과 7월에 각각 실시된 총선 및 대선과 관련한 정부지출 증가, 국제 상품가격 하락으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당초 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높은 4.6%를 기록함.
- 2010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시장 개선 및 임금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2009년 상반기부터 지연되었던 고정자산 투자 재개에 따른 투자 확대로 6.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1년에도 민간소비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투자 증가 등에 의한 투자 증가세 지속, 수출 호조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6.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년에 식료품 가격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국내수요가 급증하면서 9.9%로 상승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국내수요 또한 감소하면서 2000년 이후 최저치인 4.8%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루피아화 강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압력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확대로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5.1%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11년에는 식료품 및 연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5.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식료품 및 연료 가격 상승으로 2011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인 7.02%를 기록하자 중앙은행은 2011년 2월 기준금리를 6.5%에서 6.75%로 인상한 바 있으며, 2011년 10월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를 다시 6.5%로 인하함.

□ 정부예산 집행 지연으로 재정수지는 소폭의 적자 지속

- 인도네시아는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재정수지 적자폭은 2004년 이후 GDP의 1% 내외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해 왔음.
- 2008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 보조금 축소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로 GDP 대비 0.1%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빈곤층 앞 현금 지급과 공무원 급여 인상을 통한 가계지출 지원, 인프라 사업 투자 등에 71조 3,000억 루피아(약 72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의 상당부분이 행정적인 이유로 집행이 지연되었으며, 법인 소득세 2% 포인트 인하 등 신규 조세 인센티브 도입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경제 성과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인 GDP의 1.6%를 기록함.
- 2010년 중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지출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 상반기 중 배정된 예산의 35% 정도만이 집행되어 동기간 중 47조 9,000억 루피아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장기 투자 사업에 대한 집행 지연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인 GDP 대비 2.1%를 하회하는 0.9%를 기록하였음.
- 2011년에는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1.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포트폴리오 투자 등 높은 외국인투자 의존도

- 인도네시아 경제는 자체적으로 축적된 자본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정치적 혹은 사회적 불안정한 사태 발생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감소할 경우 경제기반이 약화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님.
- 특히 국내외 금리차로 인해 투기성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단기 투자자금 규모가 커 급격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2010년 중 인도네시아에 유입된 외국인 단기자금이 130억 달러

에 달하고 2010년 말 기준 정부 채권의 3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단기채권의 30%,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주가 총액의 60%를 외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경제성장 제약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전력, 도로 등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였으며, 열악한 인프라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 수요가 매년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인도네시아 중심인 자바섬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전력 생산 효율성 및 송배전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낮음.
 -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도로 운송시간이 지연되는 등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음.

□ 지역간 경제발전 불균형

- 풍부한 천연자원, 관광자원 등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로 점진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자카르타, 발리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 투자가 편중되어 경제 발전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함.

□ 관료주의 행정 및 부정부패의 만연

-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개혁 추진 등으로 행정절차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2010년도 정부 예산 집행도 복잡한 행정업무 및 만연된 부정부패 등으로 지연되는 등 여전히 관료주의 행정과 자의적인 법해석 및 편법의 성행 등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증가

- 2억 4,300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월마트, 카르푸 외에 우리나라 롯데마트가 진출하는 등 대형 할인마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차량 판매가 전년대비 57% 증가한 76만대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9월까지 66만대의 차량이 판매되는 등 내구재 구매가 증가하고 있음.

□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2억 4,300만 명으로 추정되어,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인구의 66.5%가 15~65세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인도네시아는 석탄, 주석, 구리, 니켈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동남아시아 최대의 산유국이며 세계 2대 LNG 수출국임.
- 그러나 석유의 경우 생산광구에 대한 재투자 부족으로 원유 생산량이 OPEC 쿼터 이하로 감소하자 2004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하였으며, 2008년 9월 OPEC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2010년 말 기준 약 42억 배럴 (세계 매장량의 약 0.3%)임.
- * 석유 매장량 비교(2010년 말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2,645억 배럴, 인도 90억 배럴, 말레이시아 58억 배럴, 베트남 44억 배럴 등
- 행정 및 제도적 규제면에서 여전히 많은 개혁이 필요하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탐사 및 정유

방식 도입, 적합한 보조금 정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자원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에너지, 자원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건설 측면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책성과

□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

-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도요노 정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음.

□ 경제개혁 추진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확대

- 2004년 10월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인투자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 철폐와 부정부패 근절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 앞으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인프라 서밋을 개최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노력해 옴.
-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2004년 19억 달러에서 2010년 133억 달러로 확대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 4월 경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내외국인 동등 취급, 토지 이용기간 연장, 투자허가 진행기간 단축, 투자인센티브 마련, 외국인투자자 체류허가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을 통합하는 신투자법을 마련하였음.

3. 대외거래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 2008년에는 상반기 중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급등과 국내 연료소비 증가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도 328억 달러에서 229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감소,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 등으로 흑자 규모가 전년도 105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크게 감소함.
-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와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 국내수요 및 투자 감소 등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31.4% 증가한 30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경상수지도 GDP의 2.0% 규모인 10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2010년에는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 상품가격 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수준인 30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이익 및 배당 송금 증가로 소득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의 0.9%인 60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2011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상품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유가 급등과 국내 수요 확대에 따라 상품수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는 각각 367억 달러, 57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f
경 상 수 지	105	1	106	57	57
경상수지 / GDP	2.4	0.0	2.0	0.8	0.7
상 품 수 지	327	229	309	307	368
상 품 수 출	1,180	1,396	1,196	1,581	2,089
상 품 수 입	853	1,167	887	1,274	1,721
외 환 보 유 액	569	516	661	962	1,362
총 외 채 잔 액	1,339	1,462	1,575	1,541	1,588
총외채잔액 / GDP	31.0	28.7	29.2	21.8	18.9
D . S . R .	17.1	12.9	17.6	14.1	10.6

자료: IMF 및 EIU

□ 외환보유액 증가세

- 2010년 중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 또한 2010년말 기준 96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말에는 1,362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규모: 569억 달러(2007년) → 516억 달러(2008년)
→ 661억 달러(2009년) → 962억 달러(2010년)

□ 외채상환능력 개선

-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9년 29.2%를 기록한 이후 경제규모 확대로 2010년에는 21.8%로 하락하였으며 2011년에도 18.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D.S.R.도 2009년 17.6%에서 2010년 14.1%로 하락하였으며 2011년에도 10.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호조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이 2009년 116.92%에서 2010년 87.18%로 하락하였으며 2011년에는 69.2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은 2009년 53.79%에서 2010년 52.59%로 하락하였으며 2011년에도 45.2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유도요노 현 대통령의 재선 승리 후 안정적인 정책 운용

- 2009년 4월 총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Democrat Party: PD)이 20.9%의 득표율로 최다 의석을 확보한데 이어 7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60.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승리함에 따라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용해 옴.

□ 연정내 여타 정당과의 갈등 등이 적극적인 개혁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은 2009년 총선에서 6개 정당들의 지지로 총 75%의 국회의석을 확보하였으므로 유도요노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연정내 여타 정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임.
- 유도요노 1기 정부의 집권기간 중 연정내에서 부정부패 척결 등 정부의 개혁 노력에 대해 걸림돌 역할을 해왔던 골카르당이 2기 정부에서도 주요 연정 파트너가 되었으나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유도요노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초기에 골카르당에 의해 제기된 센츄리은행 구제금융 관련 스캔들로 유도요노 정부내 개혁추진의 핵심 인물인 물라니(Sri Mulyani) 재무장관이 교체되었음.
- 또한 2011년 6월 민주당 재무담당자가 비리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개혁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유도요노 정부의 재집권 이후 사회 안정 유지

- 유도요노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일정 수준의 사회 안정이 유지되고 있음.

□ 이슬람 세력의 폭탄테러 등 사회 불안 요소 잠재

- 인도네시아 경찰은 2002년 및 2005년 발리 폭탄테러의 배후로 알려진 과격회교단체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ah: JI)를 비롯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2009년 7월 제마 이슬라미야의 한 분파가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2건의 자카르타 호텔 폭탄테러로 이슬람세력 등에 대한 불안이 다시 고조되었음.
- 2011년 9월 자바 수라카르타 지역 교회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20명이 부상을 입는 등 과격 이슬람 세력에 의한 폭탄 테러 위험이 사회 불안 요소로 잠재되어 있음.

3. 국제관계

□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참여

- 인도네시아는 ‘독립, 영구적 평화 및 사회정의에 기반한 세계질서’라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중도노선 및 다자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기본 외교노선을 지속하고 있음. 이에 따라 ASEAN을 통한 역내 협력 체제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2006~08년 동안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참가하고, G20 회의에도 참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미국과 관계 개선 조짐

-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군사적 원조를 통해 자국 군사력 강화를 기대해 왔으나, 1999년 동티모르 인권문제와 2002년 티미카(Timika) 지역 미국인 피살사건 등으로 인해 양국 간 군사 협력이 중단되었음.
- 그러나 2005년 11월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를 해제한 데 이어 2010년 7월 12년간 중단되었던 인도네시아 특수부대(Kpassus)와의 훈련을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 11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등 최근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주변국과 간헐적인 분쟁 발생

- 인도네시아 어민들의 호주 영해 내 불법 어업, 파푸아(Papua) 독립에 대한 호주의 지지 등의 문제로 호주와 간헐적으로 분쟁이 발생해왔음.
- 유도요노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이후 개선 조짐을 보이던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는 2010년 8월 중 양국간 분쟁수역인 리아우(Riau) 제도 내에서 말레이시아 해군의 인도네시아 어선 나포로 다소 악화되었음.
 - 말레이시아와는 그동안 보르네오섬 동쪽에 위치한 석유가 풍부한 암발라트(Ambalat) 해역에 대한 소유권 분쟁, 저임금을 받는 많은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말레이시아 고용주들의 부당대우 문제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채무상환 태도

- 인도네시아는 파리클럽과 2002년 4월 54억 달러, 런던클럽과는 동년 9월 13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합의하였고, 2005년에는 쓰나미 피해로 인해 파리클럽 채권국들로부터 2005년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외채원금 26억 달러에 대해 상환을 유예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경제상황 호전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2010년

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던 IMF 차관을 2006년에 조기 상환하여 현재는 잔액이 없으며, 여타 채무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등 양호한 채무상환 태도를 보임.

□ 높은 외국인 단기 투자자금 규모가 대외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10년 중 인도네시아에 유입된 외국인 단기자금이 130억 달러로, 2010년말 기준 정부 채권의 3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단기채권의 30%,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60%를 외국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단기 투자자금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급격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시 대외유동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단기 채권물의 기간을 늘리고 정기예금의 형태로 전환한 상품은 국내금융기관만 매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1%에서 2011년 3월부터는 5%, 6월부터는 8%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각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비중을 자본의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외환관리 규제안을 마련하였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현황

-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중기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점과 외환보유액 증가 등 대외 유동성 개선 등을 이유로 S&P, Moody's, Fitch 모두 2010년 이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함.
- Moody's는 2009년 9월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Ba3에서 Ba2로 상향 조정한 후 2011년 1월 인도네시아의 경기 모멘텀이 꾸준한 내수 확대와 적정 속도로 진행되는 경제정책 및 구조조정,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등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여 Ba1

으로 또 다시 상향 조정하였음.

- S&P는 2011년 4월 인도네시아의 양호한 경제 성과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따른 재정수지 및 대외 유동성 개선을 이유로 외화 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BB에서 BB+로 상향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 (2011. 3.)	4등급 (2010. 4.)
S&P	BB+ (2011. 4.)	BB (2010. 3.)
Moody's	Ba1 (2011. 1.)	Ba2 (2009. 9.)
Fitch	BB+ (2011. 2.)	BB+ (2010. 1.)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 영국 ECGD: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중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stradius: 승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년 9월 18일 (북한과는 1964년 4월 16일)

□ 주요협정: 경제및기술협력협정(1971년), 임업분야협력협정(1987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89년), 투자보장협정(1991년), 문화협력협정(2000년), 범죄인인도조약(2000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인도네시아는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10위 수출국이자 7위 수입국으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 천연가스, 원유, 동광 등 우리나라의 필수적인 천연자원을 수입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와의 교역규모는 세계경기 침체로 2008년 193억 달러에서 2009년 153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라 22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제8위 해외직접투자국으로 대 인니 해외투자는 2011년 6월말 현재 제조업(51.2%)과 광업(27.2%)를 중심으로 신규법인 1,455건, 총 48억 7,540만 달러 투자금액(누계기준)을 기록함.

<표 4> 한·인도네시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대 인도네시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7,933,617	5,999,880	8,897,299	석유제품, 전자제품, 철강, 편물
수 입	11,320,291	9,264,135	13,985,848	석탄, 천연가스, 원유, 동광
합 계	19,253,908	15,264,015	22,883,147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인도네시아는 2010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 소비 및 투자 확대에 힘입어 6.1%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2011년에도 민간 소비와 투자 성장세 지속,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확대로 소비자물가가 2010년에는 5.1%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식료품 및 연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7% 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010년 정부예산 집행 지연으로 전년 1.6% 대비 하락한 0.9%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연료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해 1.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상품가격 회복에 따른 수출증대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유도요노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재집권 후 정치,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연정내 갈등이 적극적인 개혁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총 외채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나 경제상황 호전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IMF 차관을 조기 상환하는 등 양호한 채무상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2010년 이후 인도네시아 신용도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음.

책임조사역 김 찬 수 (☎02-3779-5704)
E-mail: avik@koreaexim.go.kr